

진도 미역·김 “1년만에 프랑스 갑니다”

세월호 여파 딛고 바다물산서 수출 선적식
올해 10여t 예정...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세월호 참사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온 진도 미역과 김이 프랑스 수출길에 오른다. 진도군은 7일 의신면 도목리 소재 바다물산에서 ‘진도 미역, 김’ 프랑스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개최했다. 바다물산은 지난해 프랑스에 미역 5톤(1억원 상당)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 9월 2톤(김 1000숙)을 시작으로 모두 10여톤(2억원 상당)을 수출할 예정이다.

파도와 조류가 강한 청정 해역에서 생산된 ‘진도 미역, 김’은 오래 끓여도 싱싱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등 프랑스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경환 대표(바다물산)는 “동맹국화, 고협업 등 심혈관계 질환의 개선 효과가 있

고, 천연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각종 성인병 예방에 우수한 진도미역이 수출시장에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도 미역은 176여가 2304ha에서 4만3267톤을 생산해 65억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의 신선한 해조류 등 농수산물에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오는 2018년 목표인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7일 진도군 의신면 도목리 '바다물산'에서 열린 '진도 미역, 김' 프랑스 수출 선적식에서 참석자들이 수출을 축하하는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 상’ 관광자원화

전국 첫 특허청 상표등록

해남군이 우수영에 설치된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 상’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 우수영에 조성된 이순신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 상’이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는 처음으로 상표 등록된 사례로, 우수영 이순신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칼과 갑옷 대신 도포를 입고 지도를 든 모습으로 제작돼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수영 울돌목에 조성된 고뇌하는 이순신 상은 지난 2008년 10월 명량대첩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해남 출신 조각가 이동훈씨가 높이 2m, 넓이 65cm 의 실제 사람 크기로 제작했다.



해남군은 고뇌하는 이순신상의 차별화된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고 덕수씨충무공과 총회의 동의를 얻은 뒤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인간 이순신상을 그려낸 고뇌하는 이순신상이 해남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광복 귀향길 의문의 화재로 118명 바다 수몰

해남 옥매광산 광부들 이야기 연극무대에

극단 미암 ‘그들의 귀향’ 9·10일

광복의 기쁨과 함께 귀향하던 중 의문의 화재로 바다에 수몰된 해남 옥매광산 광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미암(대표 고유경)은 “9~10일 이틀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창작극 ‘그들의 귀향’을 공연한다”고 7일 밝혔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제주도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던 해남군 황산면의 옥매산 광부 118명이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청산도 앞 바다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전원 희생된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됐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하는 공연

장상주단체이기도 한 극단 미암은 광복 70주년이자 광부들의 수몰사건이 일어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4개월여에 걸쳐 옥매광산을 답사하고 유족들을 만나 채록 작업을 해왔다.

고유경 대표는 “잊혀지지 말아야 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연극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연은 오후 7시에 열리며, 선착순 무료 입장이다. 한편 연극 ‘그들의 귀향’은 해남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제주문예회관 대공연장, 10월 3일 담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국비 공모사업 ‘찾아가는 이장교육’

해남군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나선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비 공모사업 중 하나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신청과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이장교육’을 실시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위해

서는 주민 역량강화와 아이팀 발굴을 위한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4회 안팎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팀 발굴과 주민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마을로 지정되며 2억~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 흑미 ‘명품쌀 만들기’ 박차

농가 등 150여명 참석 기술보급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진도군이 흑미 우량품종 기술보급을 통한 명품쌀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와 각 학습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미 등 기술보급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서는 ▲유기비 생산 기술시범으로 실시한 벼 포트 육묘 이앙 단지 ▲흑미 품종으로 선별된 농가실증시험포장 ▲고품질 벼 자율교환시범포장 ▲대파 기계화 파종 정식을 통한 생력제세시범사업 등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뤄졌다. 또 올해 농사작황 분석과 문제점 검토 등 시범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한 농업인 상호 간 정보교류 등의 시간도 가졌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중간 평가회에서 “흑미 등 진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 대표 브랜드 쌀이 되기 위해선 농업인의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진도)군도 진도농업인의 농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소방서 진도 119안전센터에서 진도지역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하기 등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 확실히 해야죠”

진도군 대형사고 예방 어린이 25명 소방교육

진도군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최근 관내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해남소방서 진도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해남소방서 진도 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법 등에 대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진도군 드림스타

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실제 대피 훈련이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체험 중심 교육사업이다. 진도군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박미화 진도군 드림스타트 담당은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의신면 추석맞이 부산·광주서 특산물 직거래장터

추석을 맞아 진도군 의신면이 도·농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서 진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8~9일 이틀동안 부산시 대대 2동 5일 장터 인근에서 진도 농수특산물 전시·판매행사 및 특산물 시식·시음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도·농간 자매결연 도시 소비자에게 진도명품인 농수특산물을 홍보·판매해 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정 고객을 확보,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다.

또 오는 15~16일에는 광주시 풍암동사무소에서 진도농협 의신지점과 지역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이 참가해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함께 열 예정이다.

진도군 의신면은 부산시 대대 2동과 지난 2013년, 광주시 풍암동과는 지난 2005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북구 두암동 구면허시험장입구 삼거리부근
대지677㎡ 건물377㎡ 위치, 접근성★★★★★
2층건물, 세차장있음, 현주유소
감정가11억9천 최저가8억3천3백 감정가의70%
-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인근 카페거리
대지754.6㎡ 건물1653㎡ 지하1층~지상4층(E/V있음)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상권중심 수익성★★★★★
감정가16억2백 최저가11억2천 감정가의70%
- ★서구 광천동 4층다가구주택 수아비스웨딩홀뒷편
대지240㎡ 건물411㎡ 건물상태, 투자★★★★★
광천동 재개발지역, 9월중 조합설립인가 추진중
감정가4억4천8백 최저가4억4천8백
- ★동구 학동 지하2층~지상5층 근린주택
대지456㎡ 건물1802㎡ 전대병원맞은편 도로접
양·한방병원 위치, 접근성★★★★★
감정가23억2천2백 최저가16억2천6백 감정가의70%
- ★북구 두암동 지하1층~지상3층근린주택
대지198.2㎡ 건물512㎡ 접근성★★★★★
헤어샵, 의류매장 모든업종가 시내버스승강장부근
감정가3억9천8백 최저가3억1천9백 감정가의80%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전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투데이 옥션 부동산경매 추천물건

- 광주 두암동 주유소부지
4차선 대로변 코너 위치 아파트와
주택가 상권 신축 건물부지적합
대지 677㎡ 건물 350㎡
감정가 11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 2천 최저가 16억 2천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5번좌로 공장
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3495㎡ 건물 2308㎡
감정가 19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 광주 북구 각화동 상가건물
각화동 금호타운 맞은편위치
요양병원 추천, 지상층 ~ 지상3층
대지 1115㎡ 건물 1749㎡
감정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구 남영비즈타워가 상무비즈니스센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청도보 5분 거리 | 관공서 밀집 지역 | 오피스 전용 빌딩 | 넓은 주차공간 | 저렴한 관리비

임대문의: 010-2633-1100 | 관리실: 062-381-5551 | Fax: 062-384-5551